

Art Critique

비평

2025 <김미지의 작품에 관하여...> | 김병헌
2025 <일상의 기록_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이현남

Education

학력

2010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전공 졸업
2013 조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전공 졸업
2017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수료

Selected Solo Exhibitions

주요개인전

2024 <하늘을 품은 순간들> | 백희갤러리/전주
2019 <감정전염> |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광주
2018 <감정이라는 조각의 형상화> | 갤러리리채/광주

Selected Group Exhibitions

주요단체전

2025 <아트광주:25> |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
2025 <Art Blitz Gwangju> | 갤러리 김넷과/광주
2025 <아시아프 ASYAAF> | 문화역서울/서울
2024 <프로방스 언덕의 화가 part.2> | 갤러리 사이/서울
2022 <한국치앙마이 아트교류전-뮤지움@태국> | Chaloe Phrakiat Park/태국 치앙마이

김미지의 작품에 관하여... | 김병헌

김미지의 일련의 작업을 보면, 그림의 전경, 즉 하단부에는 숲이나 산, 논과 밭, 정자 등의 이미지가 있고 상단부에는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보름달을 연상시키는 둥근 원이 그려져 있는 구조의 그림이 주를 이룬다. 물론 그의 작업에서 전경의 이미지는 작품에 따라 없기도 하고 원과 구름(이것 역시 없을 때도 있다), 전체적인 화면의 색감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미묘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들은 '무엇이다'라고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하나의 공통적인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예를 들면, <퇴근길>(2021)이란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 좌측 하단부의 교통단속카메라(처럼 보이는)가 메달려 있는 긴 가로형 바에서 중앙 하단의 십자가부터 우측으로 이어지는 건물들의 사각형 스카이라인까지 실루엣으로 처리되어 상단의 회색빛 둥근 원과 흩어지는 구름, 그 아래의 황혼빛 오렌지색과 함께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왠지 쓸쓸하면서도 따뜻한 상반된 감정을 준다. 이번에는 <월출산>(2024)이란 작품을 보자. 이 작품은 앞의 작품과 정반대의 시간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의 안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해가 뜨면서 생겨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도 하단의 초록색 논과 밭, 푸르른 산과 흩날리는 운무는 우리에게 역동적인 생명력을 전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형의 달에 의해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준다. <근심>(2023)에서도 달이 떠 있는 어두운 밤 또는 새벽녘, 언덕 위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외로워 보인다. 그러나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마치 둥근 보름달이 떠 있는 깊은 밤 산중에서처럼 차갑지만 포근하게 다가온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마치 쌍둥이 작품처럼 보이는 <안위>(2023)를 보자. 이 작품 역시 전체적인 색감이나 언덕, 나무의 어두운 실루엣은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차가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요즘 유행하는 불명에서처럼, 무수한 별의 운행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어떤 알 수 없는 위로를 받도록 만든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작품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코자 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김미지의 작업에서 얼핏 보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상반된 느낌을 동시에 주도록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자연의 것이건 도시의 것이건 간에 그가 하는 대부분의 작업이 외부의 대상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는, 즉 외부 대상의 모방·재현을 원리로 하는 전통적인 자연주의 작업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우리는 제외된 그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단 한 가지 요소가 다른 아닌 달처럼 둥근 원형의 구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김미지의 작업에서 이 원형의 구체는 매우 중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거의 유일하게 외부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모방·재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모방해서 재현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 안에는 수많은 삼각형이 뿔뿔하게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각형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라면, 원 안에는 이러한 패턴들의 모임으로 채워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프랙탈 구조와 엄격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망델브로가 말하듯이, 프랙탈이란 "각 부분이 전체의 축소된-크기의 복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 갈라질 수 있는 거친 또는 파편화된 기하학적 모양"이다. 즉 작은 부분들과 전체가 자기-유사성을 갖는 그러한 기하학적 모양의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작업은 프랙탈 구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작은 부분들, 즉 삼각형들이 전체, 즉 구형과 자기 유사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김미지의 작업에서 보이는 패턴화된 삼각형의 배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일단 삼각형을 자세히 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의 삼각형이, 마치 자로 잰 듯이, 정밀한 크기로 그려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삼각형은 기하학적 모양을 가졌지만, 수학적이고 기계적인 계산에 의해 정확한 크기나 비율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삼각형이 전적으로 작가의 직관에 의해 그려진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직관으로 그린 삼각형이기에 원형의 구체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리라. 이렇게 달처럼 보이는 원형의 구체는 직관에 의해 그려진 패턴화된 삼각형의 모임으로 채워져 있다. 작가가 말한 바대로 패턴화된 삼각형의 모임을 그리게 된 계기는 대학 졸업 무렵 우연히 지나가다 본 공방에 걸려 있던 조각보였다. 제각각인 자투리 천을 퍼즐처럼 이어 붙인 조각보와 닮은 꼴 같은 불안정한 작가의 모습. 형용할 수 없는 여러 감정과 상처받은 기억들에서 파편화된 조각으로, 삼각형으로, 삼각형의 패턴으로 점차 변형되었으며, 퍼티를 활용한 원형의 저부조 위에 삼각형의 조각들을 채우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리라.

김미지의 달은 평면의 작업에서 유일하게 부조이며, 유일하게 모방·재현으로서의 달이 아니라 기하학적 추상으로서의 삼각형 패턴과 구의 집합이며, 수학적 도형이 아닌 직관적 형태로서의 달이자, 유일하게 그림 속 각 부분을 통제하는 객관적인 기능과 작가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주관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그의 달이기에 앞서 얘기한 양립이 어려운 상반된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닐까? 작가의 내면 속 깊은 본성에 의해 작가의 직관이 만들어 낸 달. 과연 이 달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될지 사뭇 기대가 된다.

일상의 기록_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 | 이현남

일상의 기록_다채로운 감정의 흔적들

반복되는 일상, 날마다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이 매번 즐거울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부단히 견뎌낸다면 그의 삶에 빛이 비추어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작가가 마주하는 하루는 어떨까? 그리고 그 속에서 대면하고 있는 고민들은 무엇일까?

한창 청년기를 보내는 중인 작가의 고민을 멀리서 보면 삶의 시기별로 겪어야 할 일, 또래들이 흔히 고민해야 할 일들과 크게 다르진 않다. 30대에 갓 접어든 적지도 그렇다고 많지도 않은 나이, 작가의 고민은 특히 미래에 관한 일들이 주를 이룬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과 취업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적잖은 현타를 느끼는 중이라는 작가는, 화가로서의 삶 또한 매한가지라고 했다. 청년 작가들과 견주었을 때 어느 만큼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내 작품 속에 녹아들어 가고 있는지, 작가 생활을 하기 위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계속 작품활동을 해낼 수 있을지? 등등... 작가의 하루는 복잡다단한 고민이 난무하는 매일의 연속이다. 이런 하루를 정리하는 작업을 작가는 마치 일기를 쓰듯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첫 이미지는 하늘에 뜬 둥근 달이 연상된다. 실제 매일 하루를 견디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올려다본 하늘 그리고 저녁달은 늘 작가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매개체였다고 했다. 또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위로하는 역할을 해주던 하늘은 작품 속에서 다양한 색으로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매번 변하는 하늘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은 작가의 복잡미묘한 감정을 일기처럼 기록해 낸 '감정의 흔적'이기도 하다.

작품의 중심에는 평화롭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내면의 갈등을 상징하는 원이 마치 둥근 달처럼 자리잡고 있다. 얇게 쌓아 올린 퍼티로 만들어진 달의 형상은 작품 속에 원구 형태로 자리하고 있으며, 매끈하게 다듬어진 그 표면 위로는 조각칼로 아로새긴 규칙적인 도형들이 존재한다. 삼각형으로 세분된 도형들은 작가의 손을 빌어 조각칼로 하나하나 새겨지는데, 그 과정은 마치 '상처'처럼 날카롭게 다가오기도 한다. 반복되는 상처에 익숙해질 때도 되었지만 여전히 아픈 상처를 다독이듯, 반복해서 새겨내는 과정을 작가는 마치 수행의 행위처럼 해오고 있다. 그는 이렇게 파란 하늘 속에 고된 것들을 꼭꼭 눌러 담아 둥글게 만들어 버리는 과정을 거치며 지난 시간들을 위로받고자 한다.

'오늘도 한 발자국 성장해 났다고, 잘하고 있다고...'

위로의 시간 속 당시의 하늘색을 기록 해내는 작품은 각각의 기억과 추억을 담고 완성 되어져 간다.

결코 완벽할 수 없는... 그렇지만 지극히 아름다운 삶.

독자와 필자가 한 사람뿐인 독특한 글쓰기 방식을 가진 일기 쓰기는 그 어떤 글쓰기보다 사적이며 비밀스러운 행위이다. 어떤 이들은 일상의 기록인 일기를 통해 삶을 회고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 보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작가에게는 작품활동이 이런 일기 쓰기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완전하지 않고 늘 실수투성이던 과거의 흔적들이 모여 만들어진 나를 온전히 이해해볼 수 있는 시간이자, 다시 힘을 내 새로운 내일의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런 과정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면 느껴지는 감정들로, 흘러가는 여러 생각들과 버무려진 감정은 어느새 응축되어 하나의 조각으로 마음속에 새겨지는데, 작가는 이를 작품 속 '구'에 담는다. 그렇기에 단단해진 동그란 조각은 어찌 보면 작가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리고 완벽하고 싶지만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삶처럼 이 새김의 과정은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다. 조금이라도 엇나간 칼은 여지없이 공들여 올린 조각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球)위에 새겨진 이미지들은 완벽하고 싶은 작가의 소망을 담아 한땀 한땀 세밀하게 새겨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그 조각들은 마치 전체와 부분이 똑같은 형태로 무한히 반복되는 프렉탈(fractal) 구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하루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 속에서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닌 애매한 차원의 프렉탈 이미지는 평면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한 입체도 아닌 원구 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번져간다.

우리 주변 거의 모든 것에 존재하는 프렉탈 패턴은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아름답다. 또한 매우 완벽해 보이지만 상당히 단순한 구조를 통해 구성된 이것은 단순한 반복을 넘어 신비롭고 오묘하다. 이처럼 아름다움과 복잡성 둘 모두를 담은 프렉탈 패턴은 마치 완벽하고 싶지만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우리 삶과도 닮아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단순함과 복잡함, 작은 것과 큰 것, 유한과 무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세상까지. 아름다움과 복잡성 둘을 다 담은 모순적인 프렉탈과도 유사한 생(生)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단순하면서 복잡한 이러한 일상에서도 작가는 그 안에 숨겨진 삶의 긍정적인 면모를 보고자 한다.

그저 단순한 반복의 연속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서로 상호작용 해가며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 역시 삶이기에, 긍정적인 의지가 더해진다면 삶은 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을 품는다면 삶은 이제 단순한 반복을 넘어 지속적인 진화와 긍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을 것이다.